

기 자 수 첩



김명회 국장

교단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고소와 고발의 표적이 되는 현실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이었던 이번 사건의 마무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

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불기소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만 한다. 지난 5월 고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까지, 해당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부정당하고 오랜 시간 법적 공방에 시달리는 동안, 교실이 위축되고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번 사안에서 눈에 띄는 점

은 교육청의 대응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피해 교사를 홀로 두지 않았다. 교육감 명의의 학부모 고발 조치는 물론, 조사 과정에 변호사를 동석시키고 교권보호전문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에 맞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실전으로 보여준 셈이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안민석 교육감이 던진 일성은 현장 교사들에게 가뭇의 단비처럼 반가운 메시지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 역시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교권을 지키는 일은 한 개인을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무

너진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오는 10월 22일, 교권보호단은 출범 6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처분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사 지연에 따른 교사의 피말리는 고통을 줄이고 악성 민원에 엄정히 대응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은 등교가 설레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교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의 든든한 실질적 울타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산양면 발대식 단체사진.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성사업 발대식 개최

문경시보건소는 10월 8일 산양면 금천 문화센터에서 주민과 건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양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살펴보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산양면은 약 30개 마을, 2,9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위원회·건강지기·건강지도자 등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마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4년간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건강위원 위촉과 건강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민 참여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산양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양면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순 기자 dss329@hanmail.net

기 고



전지영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역사는 흐른다~”로 끝나는 국민가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기억하십니까? 노래를 부르다 보면 “황희 정승, 맹사성, 과학 장영실~”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다의 왕자 장보고’, ‘만주 벌판 달려라 공개토대왕’처럼 폼나는 수식어가 붙은 다른 위인들과 달리, 맹사성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승이라는 지위에서도 화려한 가마 대신 소를 타고 백성들과 어울렸던 그의 소박함, 거창한 수식어 없이도 빛났던 청백리(淸白吏)로서의 청렴

소를 탄 정승과 흙의 마음, 그리고 ‘행동하는 청렴’

함이 노래 가사에도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맹사성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이유는 단지 뇌물을 받지 않고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 직접 내려가 흙내음을 맡으며 그들의 고통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했던 ‘행동하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사성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날 공공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청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습니다. 흔히 ‘청렴’이라고 하면 규정을 준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소극적 청렴’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는 청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태도가 말로 오늘날 국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청렴일 것입니다. “나는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방관자적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청렴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청렴은 농사를 짓는 과정과도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리처럼, 농업은 눈에 모를 심고, 잡초를 솎아내며 끊임없이 돌보는 등 적극적인 수고로움 속에서만 정직한 결실을 내어줍니다. 그저 씨앗만 뿌려두고 자연의 섭리에만 맡겨둔다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야 하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

장흥군,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

장흥군은 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단체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주최, 재향군인회(회장 송두성)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향군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향군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우수 회원과 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와 축사, 안보 결의문 낭독과 선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세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매년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장흥군



재향군인의 날 안보결의대회

재향군인회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향군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흥 병원이 후원하는 행촌장학회는 장흥 지역 중학교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혜순 기자 tgbyhnuj1@daum.net



업무보고사진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전덕규 이사장, 부서별 업무보고로 현안 점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덕규)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공단의 주요 현안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5부 1실 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해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조직 운영, 경영 개선사항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벗어나 각 부서가 직면한 현안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전덕규 이사장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관리 강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덕규 이사장은 “업무를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각 부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벽을 낮추고 서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열 기자 eer4810@naver.com



2026 의정동우회 10월 회의 사진

김천시 의정동우회 10월 회의 통한 지역 상생 및 현안 해결 앞장

김천시 의정동우회(회장 황병하)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刮는 8일, 회원들이 뜻을 모은 가운데 2026년도 하반기 10월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 한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연말 활동 방향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회원들은 ▲김천시청 정문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농지전수조사 실태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김천시내 전반에 추가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다루어졌다. 황병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연한 가을의 결실처럼, 우리 의정동우회도 그동안 쌓아온 뜻깊은 성과들을 나누는 시기”라며, “전·현직 의원들이 지닌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모아 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정동우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협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윤철수 기자 ycs2460@naver.com



결의대회 사진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7일 목포국제추구센터 대강당에서 (사)목포시관광협의회와 함께 관광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을 친절하고 쾌적하게 맞이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계와 관련 단체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목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광업계 대표 2인의 결의문 낭독, 결의 다짐 퍼포먼스, 관광수용태세 개

선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통해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관리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 등을 실천하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진 관광수용태세 개선 강연에서는 관광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친절서비스의 중요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재용 기자 sidae4520@hanmail.net